

# 中 3대유적 원강석굴 보존에 관민 나서

官民

중국의 산서성 대동시의 고대 불교유적 원강석굴을 보존하는 데 관민(官民)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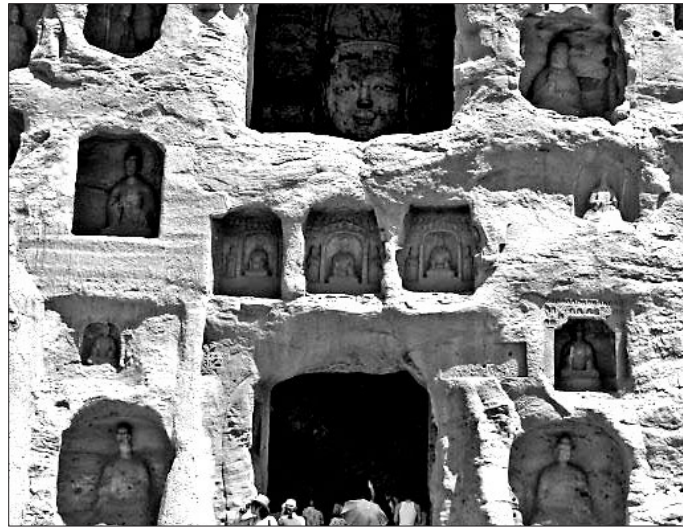
《Epoch Times》지는 8월 12일(현지시간)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원강석굴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관민(官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중국 최대 석탄 산지인 대동시 일대는 연평균 강우량이 300mm 채 되지 않아 석탄 채굴과 운반 과정에서 나온 탄분으로 석굴 훼손이 심하다”고 보도했다.

5~6세기 중국의 석굴 미술과 불교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원강석굴은 252개의 석굴에는 5000여 개의 불보살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15km에 걸쳐 조성된 석굴 대부분 풍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 석탄 광산의 채굴과 운반 과정에서 흘러나온 탄분으로 뒤덮이면서 크게 훼손되고 있다.

《Epoch Times》지에 따르면, 산서성이 지난 2년간 위탁·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동시 일대의 탄분과 매연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원강석굴의 훼손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Epoch Times》지는 보고서를 인용, “원강석굴은 사암으로 제작되어 탄분의 착색이 심해 불보살상에서 흑갈색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또한 석굴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매연이 사암에 함유된 물과 반응해 석굴 벽면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강석굴보존위원회 왕마오(산서성대학) 교수는 “2001년을 기점으로 석굴 일부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며 보존에 노력



원강 석굴의 초입 전경. 원강석굴은 초입의 강렬한 인상으로도 유명하다. 여백이라고는 조금도 허락하지 않을 태세로 입구에서 천장까지 주굴 벽면에는 온통 불교조각상과 회화들이 빼곡하게 묘사돼 있었다.



**원강석굴... 252개 석굴에 5천여개 불보살 조성, 불교신앙 진면목 보여**  
**中 산서성, 탄분·매연 등 대기오염으로 훼손 가속화**  
**官民... 석굴 일대 트럭 운행 제한, 석굴 세척 정례화 캠페인 진행**

을 해왔지만 여의치 않다”면서 “이제는 관민이 함께 나서 원강석굴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왕마오 교수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동시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석굴 일대의 화물 트럭 운행을 제한하고, 석굴 세척을 정례화 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동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원강석굴은 대동시의 자랑”이라고 말한 판차오차오(광산 노동자) 씨는 “원강석

굴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대동시는 석탄 산지로 화력 발전 소로만 주목 받았다”며 “원강석굴이 있어 야만 이곳도 문화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소중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원강석굴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에 아팠다”고 말한 쑤부어쑤(화물트럭 운전자) 씨는 “석굴일대에서 석탄을 실은 화물트럭은 하루 평균 20,000여 대가 다니고 있다”며 “저도 그 중의 한 대를 운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석굴의 훼손이 가

속화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 ‘세척 봉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Epoch Times》지는 “관에서는 석굴 앞쪽으로 화물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규제를 가해 대기오염의 원인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광산 노동자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부드러운 솔과 물을 가지고 불보살상 세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원강석굴의 아름다움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됐다”는 짜오찌안(광산 노동자) 씨는 “탄분을 베껴내는 과정에서 불보살의 착색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면서, 과거 산서성 일대의 불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기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태국 前 부총리, 수도승으로 변신

반정부 시위 주도했던 인물, 7월 중순부터 생활 시작

태국 반정부 시위를 반년 이상 주도했던 수텡 티역수반 전 부총리가 불교 수도승으로 변신했다.

그의 측근인 텡파이 세나봉 전 의원은 7월 15일 트위터를 통해 “수텡 전 부총리가 이날 고향인 수랏 타니 주 타사이 사원에서 삭발식을 하고 불교 수도승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텡 전 부총리가 왜 갑자기 수도를 시작했는지, 수도를 얼마나 오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에서는 남성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절에서 수도하며, 수텡 전 부총리는 이전에 40일간 수도한 적이 있다.

수텡 전 부총리는 2013년 11월부터 반년 이상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으며, 이 시위는 지난 5월 임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를 붕괴시킨 군부 쿠데타로 이어졌다.

수텡 전 부총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프라웃 찬-오차 육군참모총장과 자신이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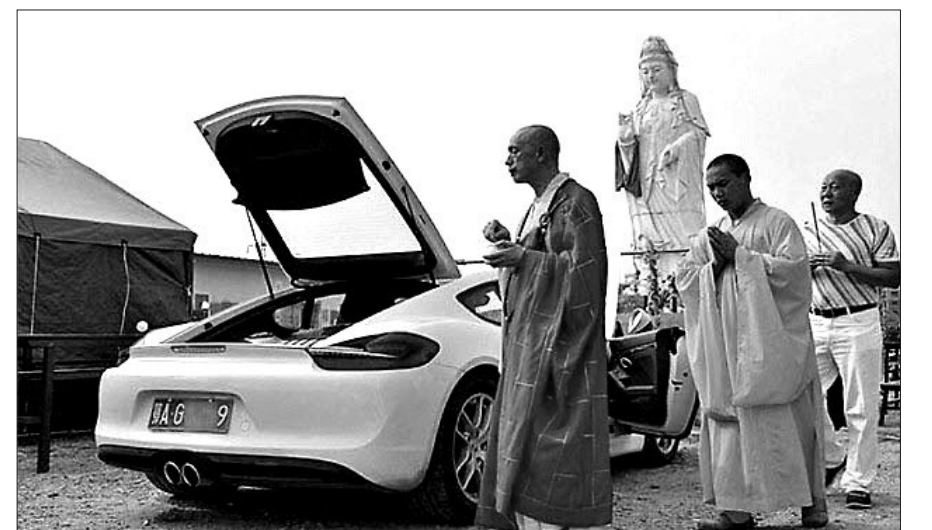


지난 5월 반정부 시위를 이끈 수텡 태국 전 부총리가 방콕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다.

랫동안 임락 정부 전복을 논의했다고 공개하고 나서 군부로부터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삼가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나은 기자

# 포르쉐 스포츠카도 축원 대상이 될까

中 스님, 고액 보시금 받고 '무사고 기원' 기도



포르쉐 스포츠카의 '무사고'를 축원하고 있는 중국 스님.

불교는 자비와 근검을 미덕으로 삼는다.

‘삼독’을 경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지 않나.

그런데 중국에서 부자와 스님이 ‘포르쉐’와 ‘축원’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함께 대중의 도마에 올랐다.

《Mail Online》지는 “중국의 성공한 벤처기업의 사장이 최근 구입한 고가의 포르쉐 스포츠카에 ‘무사고’ 기원을 스님께 부탁하고 고액을 보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도홍(Tao Hung) 씨가 포르쉐의 최신 모델 스포츠카를 구입한 후, ‘고액의

보시금’을 들고 중국 후베이성 중부에 있는 도시 샤오간(Xiaogan)의 전통사찰을 방문해 ‘포르쉐 무사고 기원’ 축원 법회를 요청했고, 사찰 측에서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호복 지방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부자와 스님은 여론의 조짐이 되었다.

이에 대해 《Mail Online》지는 ‘전통사찰이 가장 손쉬운 돈벌이를 택했다’ ‘축원은 돈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등 대중의 비난 여론을 언급하고, “부자와 스님을 향한 비난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국, 티베트-인도-네팔 잇는 철도 건설한다

2020년 완공 계획, 티베트 전통문화 파괴 우려

중국이 2020년까지 티베트에서 인도 및 네팔의 국경에 이르는 철도를 건설한다.

중국 환구시보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등은 최근 중국 당국이 칭하이(青海)성 거얼무(格爾木)와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칭짱(藏)철도를 인도 및 네팔 국경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인도를 잇는 철도 실코르도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여온 인도에 위협이 될 것이라 전망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양위린(楊育林) 티베트자치구 철도국 부주임은 “13.5 규획(13차5개년 계획, 2016

년-2020년) 기간에 칭짱 철도를 각각 인도, 네팔과의 국경 도시인 야둥(亞東), 지룽(吉隆)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개통된 칭짱열차는 확장공사를 거쳐 오는 8월 라싸에서 티베트 제2의 도시인 르카쩌(日喀則)까지 253km 구간이 새로 개통된다. 이어 2020년까지 르카쩌에서 인도·네팔 국경도시들에 이르는 2000km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국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남아시아 간 철도 실코르도 건설을 희망해 왔으며, 이번 철도 건설은 중국과 인도 등 남아시아를 철도로 잇는 철의 실코르도 구상의 출발선이라는 관측이 나



티베트 라싸에서 르카쩌를 연결하는 253킬로 구간이 8월에 개통된다. 또 2020년까지 인도 및 네팔 국경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고 있다. 하지만 칭짱열차가 인도 국경 지역까지 연장되면 한족 이주민이 티베트에 대거 몰

려들이 티베트 전통문화와 생활방식 등이 파괴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리게 지명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